꽃향기따라 "명인을 찾아" 다같이 '남도 한바퀴'

문광부·한국관광공사 5월 1~14일 봄 관광주간

전국 관광업 할인이벤트…광주시 명인 테마 4코스 운영 360년 장맛 찾아 종가 여행, 시인·소설과 문학기행 등

광주시·전남도가 봄 관광주간(5월 1~14일)을 맞아 '명인테마코스', '남도 한바퀴' 등 대표 관광 상품을 통해 외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.

시·도는 특히 호남선KTX 개통에 따 른 남도관광 특수가 예상되는 만큼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집 중하고 있다.

광주시는 이 기간 명인(名人)테마 코 스 4개를 발굴·운영한다.

시는 '360년 장맛 진장명인 및 진다리 붓 명인을 찾아 떠나는 종가여행'을 당 일과 1박 2일 상품으로 구성하고, 송정 역을 출발해 가사문화권, 진장 명인 기 순도 탐방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.

또 '술향에 취하고 차향에 취하는 여 행'코스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수자타사 찰 음식체험, 식품명인 한국제다 서민 수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짜여졌다.

이 외에도 '광주의례음식 명인의 손 맛 따라하기 여행'과 '시인, 소설과 함께 하는 문학의 향기 여행'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남도의 맛과 멋을 외 지인에게 알릴 예정이다.

전남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운행을 재 개한 전남도 관광순환버스 '남도한바 퀴'를 대표주자로 내세웠다. 5개 권역 8 개 코스로, 모두 41개 관광지를 도는 '남

도한바퀴'의 일부 노선은 이미 5월 말까 지 예약이 끝났을 정도로 인기다.

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금오도 비렁 길 탐방노선은 이미 5월 예약이 마감돼 오는 6월에나 예약이 가능할 전망이다.

지난 세월호 사고 후 침체한 진도관 광을 활성화하고, 진도 주민에게 경제 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설된 광주~ 진도 간 직행노선도 큰 인기다.

이 노선은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토 요민속공연 관람과 운림산방의 토요그 림경매 참관, 신비의 바닷길 등을 경유 토록 해 보배의 섬 진도관광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.

'남도한바퀴'는 하나투어, 코레일 등 에서 예매·예약 및 온라인 문의가 가능 하며, 광주, 순천버스터미널 직행 매표 창구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다. 전화 상 담 센터(062-360-8590)도 운영 중이며, 송정역, 광주터미널, 순천역, 순천터미 널, 목포역 등에서 승·하차가 가능하다.

이용 요금은 9900원이다.

이 기간 전국 관광업체 3003곳에서는 다양한 할인이벤트도 진행한다. 농촌체 험휴양마을 148곳에서 체험행사·숙박 시설·특산물 판매 가격을 20% 할인한 다. 국립공원 야영장 28곳의 이용료와 4 대 궁, 종묘 입장권은 50% 할인된다.

숙박업체는 1411곳이 할인행사에 참 여한다. 지역 추천 맛집·외식업체·농가 맛집 등 음식점 439곳도 동참해 음식 관 광을 촉진할 계획이다.

전국 75개 사찰에서는 1만원에 가능 한 '행복만원 템플스테이'도 진행한다. 유명 테마파크와 창조관광기업 13곳도 할인행사에 참여한다.

한편 관광주간 웹페이지(spring. visitkorea.or.kr)에서 봄철 관광주간 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 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초·중·고, 봄 관광주간 5~8일 쉰다

교육부, 1만199곳 자율휴업…정부, 근로자 연가 장려

국내 초·중·고교 89%가 봄 관광주간 행사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 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자율휴업을 하 거나 단기방학을 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"5월 1~14일 봄 관광주간 캠페인에 정 부부처 · 전국 자치단체 · 공공기관 · 기업 · 학교 등이 참여해 '공무원과 근로자의 휴가 가기' 행사를 한다"고 7일 밝혔다.

이 기간에 교육부와 협력해 전국 초ㆍ 중·고교 1만199곳이 자율휴업 또는 단 기방학을 한다. 이는 전체 전국 초·중· 고교 1만1464곳의 88.9%에 해당한다. 이들 학교는 평일 기준으로 2~5일, 일 요일(5월 3·10일)과 어린이날(5월 5일)

을 연계해 모두 5~8일을 쉬게 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. 공무원과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 때문에 휴가를 내지 못하 는 문제를 풀려는 목적에서다.

봄 관광주간을 계기로 봄철 휴가 문화 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·기업·학교가 힘을 보탠다. 정부 부처 장·차관은 관광 주간에 1~3일 연가를 내 솔선수범한 다. 문체부는 인사혁신처·기획재정부· 산업통상자원부·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무원·공공기관 임직원·기업 근로자 의 휴가 사용을 촉진한다. 전국경제인 연합회·중소기업중앙회·대한상공회의 소 등 경제 단체는 관광주간 참여를 적 극 장려할 계획이다.



FISU, U대회 주경기장 점검

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7일 오전 대회 주최 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 맹(FISU) 감독위원회 위원들이 주경기장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개조 상황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. 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'5월 재정산' 직장인 541만명 평균 8만원 환급

다자녀·연금저축 공제 확대…급여 5500만원이하 稅부담 해소

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 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 금 부담을 덜게 됐다. 근로자 한 명당 연 간 8만원꼴이다.

기획재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의 협의 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'연말정

산 보완대책'을 발표했다.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

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.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 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 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 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됐다.

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 에는 55%,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가 부과되는데, 보완대책에서는 기 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.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.

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 점이 올라간 것이다. 346만명이 2632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 석됐다.

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·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, 셋째 아이 20만 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. 10만원이 늘 어난 셈이다.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

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 하 연봉자에 한해 12%에서 15%로 인상 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.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 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 다.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

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 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(15%) 중 98.5% 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(1639억원) 해소됐다. 이들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(94.8%)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.

/연합뉴스

전공노,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24일 총파업 돌입키로

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 합(전공노)이 '정부의 봉쇄'를 이유로 투 표를 중단하고 '가결'을 선언했다.

전공노는 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"정부와 기관 측의 원천봉쇄 조처로 인 해 총파업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 어 중단했다"면서 "총투표 가결을 예상

한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됐음을 선언한다" 고 발표했다. 전공노는 6일 각 지부(행정 기관)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틀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.

그러나 각 행정기관의 투표소 봉쇄나 투표함·투표용지 탈취, 경찰력 배치 등 으로 전체 54개 지부 중 4분의 1 정도에 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공노는 주장했다.

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"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 해서 파업을 실시할 것"이라고 밝혔다. 이 위원장은 "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 된다면 24일 총파업 참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"이라고 말했다. /연합뉴스

신임 합참차장에 신원식 중장

13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

문의 н.p 010-3598-7080/1899-3975

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.

정부는 7일 합참차장에 신원식 중장을 보임하고 해병대사령관에 이상훈 소장 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는 등 전반 기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.

육군에서는 장경석(육사 39기)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용우(육사 39기) 합참 신 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이 각각 중장으로

진급해 특전사령관과 군단장에 임명됐 다. 장 사령관은 12사단장과 국방부 개혁 총괄기획관, 합참 합동작전과장 등을 역

해군에서는 이범림(해사 36기) 합참 해 외정보부장과 김판규(해사 37기) 해군본 부 인사참모부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

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됐다. 공군의 경우 강구영(공사 30 기) 교육사령관 직무대리와 이왕근(공사 31기)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각 각 중장 진급과 동시에 공군참모차장과 공군교육사령관에 임명됐다. 합참 전략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김정식(공사 29기) 중장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 다. 박재복(공사 29기)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이동했다. /연합뉴스

♣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

☎062)222-2255 / HP. 010-9441-7000



2014미스코리아 "및 김서언"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여 모든 당선자들이 (주)돌피아의 홍보대시로 활동합니다.

